원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제140차 회의록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1. 일 시	2026. 4. 24. (금) 9:00~16:30
2. 장 소	숭산기념관 2층 산학협력 제1세미나실
3. 성 원	재적위원 14인 중 7인 참석, 7인 위임
4. 참 석	윤치근, 정헌영, 최일숙, 이완범, 이진중, 이강예, 박건욱
5. 위 임	김동혁, 문준일, 이승준, 심경식, 김희태, 김용구, 한종혁
6. 불 참	
7. 안 건	1. 2025학년도 원광대학교 및 부속병원 결산 자문 2. 2025학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결산 자문

[성원 보고]

- 간사 이정화: 재적인원 14인 중 참석 7인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전 회의록 인준]

- 간사 이정화: 전 회의록을 인준함.

- 의장 윤치근(이하 '의장'): 전 회의록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발언해주시기 바람. 의견이 없는 경우 금일 안건을 진행하겠음.

[안건1. 2025학년도 원광대학교 및 부속병원 결산 자문]

[원광대학교병원 결산 보고]

- 원광대학교병원장: 결산 보고

- 의장: 원광대학교병원 결산 보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발언해주시기 바람.

- 이진중 의원: 현재 원광대학교병원 수익이 회복세에 있는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병원장: 작년에 비해 의료수익이 24% 정도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전공의 비율은 70% 정도이나, 전공의특별법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인력 수급을 위해 간호사 수를 확대하였음.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제외될 경우 재정적 손실이 크므로 금년에는 해당 평가 대응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임. 또한 양성자지원센터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나, 우선협상대상자인 이스라엘 회사와의 협상은 전쟁으로 인해 결렬되었으며, 일본 및 벨기에 회사와의 협상 진행을 위해 회계적 준비를 진행 중임. 국고사업 및 지자체 지원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적용을 검토 중임. 전쟁으로 인해 재료비가 상당히 상승하였고 추가 상승도 예상되므로, 병원에서는 물자 전략과 에너지 전략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임. 학생 실습 교육공간 제공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장과 협의 중임.

- 의장: 최근에는 환자 진료만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우며, 의료외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임. 지난해 사학진흥재단 자료에서 장례문화원 관련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차입으로만 계상된 점을 지적함. 교원 인건비가 76억에서 41억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원광대학교병원장: 교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학교외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법인에서 조정한 사항. 사학진흥재단의 차입 부분은 2025년 병원필수의료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따라 조달된 사항이며 사학진흥재단 적용금리로 진행 중에 있음.

- 의장: 수가 수입이 1.93% 증가하였는데 물가상승률을 보전하지 못하고 인건비와 최저임금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지 않은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병원 재무팀장: 수치상 2025년도에는 41억 8천만원으로 되어있으나, 2025년 해당 교원인건비 전출금 중 일정 부분을 2024회계연도에 선지급 하였음.

- 원광대학교병원장: 학교 재정 상황에 따라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이진중의원: 2024년과 2025년을 합하면 정상적으로 지출된 건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병원장: 2025년은 20억 정도 줄었지만 2025년 회계연도 당시 의정사태 이후 병원 수익이 악화되는 상황이었기에 법인 이사회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일부 감액되었으나 올해 회계연도에서는 100% 회복시켰음.

- 의장: 임금 인상은 주변 대학 병원을 고려한 것인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병원 행정처장: 2024년도 의정사태 이후 2.11%이었으나 2025년에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3%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 의장: 이상으로 원광대학교병원 결산 자문을 마침.

[원광대학교 결산 보고]
- 관리처장 이철희(이하 '관리처장'): 결산 보고

- 의장: 원광대학교 결산 보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발언해주시기 바람.

- 이진중의원: 부속병원 전입금이 감소한 사유와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관리처장: 2026년 2월 28일 기준으로 부속병원 적립금은 총 27억원 미납되었음.

- 의장: 결산액이 76억 증가하였으며, 등록금 수입은 2023년과 2024년에 비해 비용 측면의 증가가 큰 것으로 확인됨. 보수 31억, 관리운영비 42억, 연구학생경비 56억을 보면 적자 결산으로 보이는 점이 우려가 됨. 보수와 관련하여 등록금 인상분 10% 수준으로 학교 운영이 가능한지 재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임. 수입 중 교육외수입은 무엇인지 질의함.

- 재무과장 강미 (이하 '재무과장'): 지출은 전년 대비 등록금 수입 증가 및 국가보조금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적자 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교육외수입은 등록금 외 기타 수입을 의미함. 주요 교육외수입으로는 예금이자 외에도 건축공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 수입, 전북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포인트 수입, 공사 관련 입찰 미참여 시 발생하는 입찰보증금 수입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이 교육외수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의장: 임대수입은 따로 없는지 질의함.

- 정헌영 의원: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기관은 어느 곳인지 질의함.

- 재무과장: 임대수입의 경우 대표적으로 전북은행이 있으며, 별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음. 학교 매점·편의점 등은 장학복지과와 자산관리과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의장: 학생연구경비가 56억 증가하였는데 입시경비 증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학생모

집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지 질의함.

- 재무과장: 연구학생경비 증가분에는 교외장학금도 포함되어 있음. 2025학년도 하반기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및 지원구간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간별로 약 40만 원씩 추가 지원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혜 금액이 증가하였고, 외부장학금 수혜 규모도 상당 부분 확대된 것으로 확인됨.

- 의장: 입시 수입이 13억인데 배정된 예산보다 더 사용하면 다른 예산에서도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입시 수입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재무과장: 입시관련비용은 입시전형료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음.

- 의장: 운영계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 수익이 104억 증가하고 운영 비용은 173억 증가하였음. 병원과 학교의 예산 배정액이 다르겠지만 병원은 임금을 3% 인상하였는데 학교는 2.4% 인상에 그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은지 질의함.

- 재무과장: 운영계산서상 보수가 51억 원 증가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지출된 금액이 아님. 2월 28일 기준 교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을 반영함에 따라 해당 금액이 부채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19억 원이 반영된 것임.

- 의장: 작년 8월 말에 퇴직한 교원들이 있는데 보수 0.4% 인상된 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불만사항에 대해 해결이 필요함.

- 재무과장: 해당 사항은 교원인사과 및 기획과와 협의 중임. 교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교원인사과에서 관련 근거 공문을 송부하면 재무과에서 이를 반영하여 산정 후 지출할 예정임.

- 이진중 의원: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었는지 질의함.

- 재무과장: 외부 자문 결과, 임단협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후 체결된 협약의 소급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임. 다만, 해당 내용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음. 현재까지는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으나, 교원인사과와 추가로 협의할 예정임.

- 이진중 의원: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의 연계성과 학생들의 대안에 대해 질의함.

- 재무과장: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됨.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는 사실상 제한된 상황임. 전년도 등록금 인상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수혜분을 산정한 결과 약 22억 원 규모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발전기금 내 장학기금에서 인출하여 학생들에게 보전 지급하였음.

- 의장: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하였는데 보수체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정해 나갈 계획인지 질의함.

- 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원광보건대학교 교원의 호봉 및 본봉에 관한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 총무과 및 교원인사과와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임.

- 의장: 통합 전에 정확한 원칙을 수립하였어야 했는데 통합 후 조정하고자 하니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관리처장: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교수협의회, 총무과, 예산과와 협의할 예정임.

- 이진중 의원: 노동조합 직원들의 경우 3월부터 통합되어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3월 전까지는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급여 조건과 인사에 대한 호봉 조건 등 확인하였음. 서로 간에 노동 활동의 차이와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해법과 추진 전략을 찾고 있음. 통합 추진을 하는 당시에 학교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두었고,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규정에 명시하여 단체 간의 이슈 시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사부서나 기획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의장: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하였으니 인건비나 보수에 대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진중 의원: 재정진단 결과에서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이 있는지 질의함.

- 재무과장: 재정 건전성 평가는 운영손익, 예상운영손익, 여유자금 수준, 학교 부채비율, 예상운영손실률, 체불임금 등 총 8개 지표로 구분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함. 원광대학교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이 91.9%로 다소 저조한 수준이나, 2023학년도 88.2%, 2024학년도 88.7%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해당 지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획과 및 성과관리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최일숙 의원: 충원율이 앞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고 지속적인 감소 상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는 방안이 필요함. 일부 학과는 통폐합을 통해 인원수를 늘리고, 일부 학과는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만으로는 단편적 한계가 있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므로 장기 전략 구축이 필요함.

- 의장: 이상으로 원광대학교 결산 자문을 마침.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 대전치과병원장: 결산 보고

- 의장: 결산 개요에서 현원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보면 1900만원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병원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의함.

- 대전치과병원장: 현황을 비교해 보면 교수나 진료 인력이 감소한 것에 비해 평균 진료비는 상승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손익을 개선하려면 환자 수가 증가하고 진료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임.

- 정헌영 의원: 환자 수가 감소한 것이 진료 인력이 줄어서라고 보고하였는데 감소한 진료 인력을 보강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함.

- 대전치과병원장: 각 과마다 진료 인원이 줄었을 때 바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고용 유발 효과없이 인력 충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전공의가 줄어드는 부분은 법인에서 전체적으로도 전공의 수를 조절하기를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에 맞추다 보니 인력은 줄었지만 진료 수익은 전년도보다 개선되고 있음.

- 정헌영 의원: 병원에서 생각하는 강점을 보강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 대전치과병원장: 작년도 대비 전체적인 평균 진료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청소년 수가 줄어들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아치과나 교정과의 환자 수가 줄었으나 노인과 장애인 환자가 증가하고 평균 진료비가 상승하였음. 대전치과병원에 장애인 센터를 유치하여 운영하며 인력을 보강하였고 노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주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이진중 의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의 경우 수입이 떨어진 요인이 익산 내 임플란트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대학병원 대신 일반병원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대전 지역은 어떤지 질의함.

- 대전치과병원장: 대전 지역도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대학병원과 일반병원의 수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임플란트 환자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청소년 진료 중심 진료과는 수입의 감소 부분이 적음.

- 최일숙 의원: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수요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보완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전치과병원장: 다양한 방안 고려검토하겠음.

- 의장: 치과병원 의료진 몇 명이고 인건비를 올려주었는지 질의함.

- 대전치과병원 사무국장: 용역직원을 제외하면 94명임. 대전치과병원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나, 노동조합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 원광대학교 치과병원과 대전치과병원의 급여 차이가 큰 편임. 교수 구성 차이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급여 인상을 억제하고 호봉 상승분만 반영하며 인건비를 최소 수준으로 인상해왔음. 인력 규모에 따라 환자 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인원 감축을 통해 수지를 맞추어 왔음. 올해는 수익성이 높은 진료과의 인력 충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애인센터에 진료지원 인력 1명 충원 등 수익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의장: 이상으로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결산 자문을 마침.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장: 결산 보고

- 의장: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결산 보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발언해주시기 바람.

- 이진중 의원: 현재 병원에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장: 조금 늦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임.

- 이진중 의원: 매번 자문 시 산본병원의 경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수익구조 다변화, 학교 차원의 지원 필요성,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주변 경쟁

여건도 심화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장: 산본병원 주변에 대형 병원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본병원이 강점 분야를 부각할 예정임. 지난 비전 발표식에서 무한경쟁과 무한투자의 레드오션, 블루오션을 결합한 전략을 퍼플오션으로 설명하였음. 산본병원의 퍼플오션 전략은 경쟁력 있는 분야를 강화하고, 어려운 분야는 과감히 인정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산본병원이 30년 동안 운영되면서 의료장비와 자재가 노후화된 부분이 있음.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응급실과 다른 과에서 주말 입원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병원 수입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의장: 원광대학교병원과 인력 차이가 있는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장: 원광대학교와 산본병원의 과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최일숙 의원: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산본병원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산본 지역의 인구 규모가 큰 만큼 취약계층이나 환자가 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및 홍보를 추진한다면 인지도 제고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장: 이상으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결산 자문을 마침.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

-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 사무국장: 결산 보고

- 의장: 로컬병원 치과와 대학병원 치과의 장점이 뚜렷하지 않으면 대학병원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로컬병원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음. 대학병원이 로컬의 경쟁력에 맞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산본병원으로 오는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산본치과병원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됨.

-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 사무국장: 말씀해주신 부분대로 하는 게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의장: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전문의와 환자를 데리고 퇴직 후 개업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퇴직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지급을 하여 기관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이진중 의원: 임상교수 인건비는 4.8억 미전출인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 사무국장: 미전출금은 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합의한 부담 제외 부분임. 100% 전출 및 100% 미전출로 보아 주시기 바람.

- 이완범 의원: 리모델링은 치과병원만 했는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 사무국장: 공사기간에도 진료를 지속해야 하므로 5층을 진료실로, 6층을 연구실로 리모델링하였음. 산본치과병원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AI 및 검진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대비 효과와 인력 운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음.

- 최일숙 의원: 투자 대비 효과를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분석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 중 고객 니즈 관련 문항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중심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음.

-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 사무국장: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통계화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중앙대학교병원의 데이터를 벤치마킹 프로그램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의장: 임금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 사무국장: 임금 지연에 대한 문제는 없음.

- 이진중 의원: 대전치과병원과 산본치과병원이 분리하여 독립하였는데 수익에 대해 산본치과병원은 기존에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 사무국장: 기존에도 회계는 분리하여 별도 회계로 운영해왔기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였음.

- 의장: 이상으로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 결산 자문을 마침.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사무국장: 결산 보고

- 의장: 원광대학교병원을 보니 작년에 인건비를 3% 증가하여 63억원을 증액을 하였던데 추

가 비용이 맞춰지지는 못해도 줄어들지는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음.

-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사무국장: 원광대학교 노동조합과 연계되어 있어 인건비 3%를 기본 인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음. 치과병원의 인건비가 감소한 이유는 전공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임. 전공의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인건비가 감소하였음. 인건비 인상과 전공의 채용에 따라 의료수입도 증가하여야 하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하였음.

- 의장: 전공의 채용 방안 마련과 전공의 인력 확보에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로컬병원에서 임플란트가 35만원인데 대학병원에서는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기 어려우므로 로컬에 밀리게 되는데 로컬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며 로컬 병원과의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함.

-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사무국장: 병원의 입장에서 연구 토론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며 지역사회 치과와 상생관계가 중요하여 익산시 치과협회 의사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의장: 환자가 많은 교수가 환자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사무국장: 법인에서도 원가분석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진료 수입이 많은 의사에게는 더 좋은 대우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법인에서 유도하고 있음. 또한 원불교 기관, 요양기관이나 언론인들이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사전에 상담과 무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최일숙 의원: 11페이지 이자율 2.53%의 부분에 기재 실수 부분이 있는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사무국장: 실수가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음. 추가적으로 농협에서 진행하는 외부 진료를 위해 교수들이 외래 진료도 방문하며 병원 홍보를 하고 있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도 구강진료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홍보하고 환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익산시 보건소와 구강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의장: 병원 내에서 환자들에게 코디네이터 같은 홍보 방법이 필요함.

-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사무국장: 병원 홍보와 할인 정책 부분에 대해 협력 중임.

- 이진중 의원: 임상교수 인건비가 4억 정도 들어오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사무국장: 대학교 상황이 어려울 때 전출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재작년부터 병원이 신축을 하면서 학교와 전출금 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의 어려움도 있었기에 조정이 되지 않았음. 병원에서 60%의 전출금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조율 중이며 조율 후 정산을 할 계획임.

- 최일숙 의원: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날 행사에는 시장, 학부모, 아동 등이 참여하므로 해당 행사에서도 홍보를 진행한다면 잠재된 고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시설, 아동시설 관련된 식약처의 사업이 있는데 해당 분야와도 교류한다면 노인과 아동 분야에서도 잠재된 고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사무국장: 말씀대로 홍보에 참고하도록 하겠음.

- 의장: 이상으로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의 결산 자문을 마침.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사무국장: 결산 보고

- 의장: 외래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광주한방병원의 특성상 입원을 유도하기 위한 양방과의 관계에 대해 질의함.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사무국장: 현재 병원이 세대교체를 하고 있으며, 3개의 진료과가 감소한 것이 외래 환자 수가 감소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진료 환자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고민 중임.

- 의장: 감소한 부분을 확대하여서 유지할 것인지 지금처럼 축소 유지할 것인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사무국장: 인력 수급을 계획 중임.

- 이진중 의원: 토지매각 관련하여 외부적인 여건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부탁함.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사무국장: 학교 측에 토지 매각 요청을 해두었음. 규모가 크지 않고 유휴부지가 100-150평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병원에서 국가

예산신청을 해두어 5년 안에 69억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며 전산장비와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 명칭을 AI 스마트 병원으로 정하였음. 전국 최초로 AI 스마트 한방병원이 될 것이라 예상됨.

- 이진중 의원: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원광대학교와 협약하여 RIS 사업으로 확장하기도 하는데 광주한방병원은 교육부와 협업 체계 구축이 없는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사무국장: 현실적으로 협력이 되고 있지 않으나 광주한방병원 독립적으로 R&D 사업을 크게 두 가지 진행 중임. R&D의 역량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됨.

- 의장: 작년에 진료 파트 3개를 줄였는데 인건비가 4.8% 증가한 것에 대해 질의하.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사무국장: 전국적으로 노동자 권익 중심의 기조가 강화되어 작년에도 동결을 유도하였으나 노동분쟁위원회까지 진행되어 어쩔 수 없이 인상하게 되었음. 진료부 시스템에 맞춰 진료지원 부문을 재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며 고용 시장의 안정성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자연퇴직을 기다리고 인력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의장: 손실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예산안이 필요해 보이며 의료비용의 재료비가 늘어났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 수익 창출의 의료수익이 늘어나야 하는데 늘어나지 않았음.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사무국장: 의료 수입을 다변화하고자 3~4년째 농협 왕진 버스로 해마다 1억 5천에서 2억 사이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재작년부터 금값 상승으로 인해 원재료에 들어가는 금박 단가가 높아져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료비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음. 이에 대해 원가에 따른 특판제 가격 인상도 추진하고 있으나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있을 듯하여 우려가 됨.

- 의장: 지하철 개통이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될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사무국장: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의장: 이상으로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의 결산 자문을 마침.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 결산 보고

- 의장: 재료비는 줄고 의료외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진단이 의료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인지와 늘린 이유에 대해 질의함.

-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 공진단은 의료외수입이 아닌 의료수익임. 공진단을 20억에 판매한다면 원가는 10억 정도로 공진단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따라 금액의 변화가 있음. 최근에는 한약 매출이 줄고 있어 재료비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음.

- 의장: 공진단과 금박을 의료수익으로 잡는지와 재료비 수입을 의료외수입으로 책정하는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 공진단은 의료수입, 금박과 사향은 의료비용으로 책정중에 있음.

- 의장: 재료비가 늘어난 만큼 의료수익도 늘어나는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 전년도에 재료를 구매해 이용하여 진료에 대한 행위가 감소하였고, 금박과 사향의 고가 제품을 미리 많이 사두어 재료비가 감소하였음.

- 의장: 소방시설 부분에 대해 질의함.

-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 7년 전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병원 경영이 어려워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 일부를 사학진흥재단 대출 제도로 활용하였음. 병원 시설 개선을 위한 차입 부분임.

- 이진중 의원: 교수들의 세대교체 관련하여 고연령대 교수가 많은 것에 대한 리스크는 어떤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 상대적으로 젊은 교수의 경우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지만 의료 특성상 숙련도나 소개환자 등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기존 교수들을 고려한다면 리스크는 적겠지만 미래 발전 측면에서는 약화될 수 있기에 법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 의장: 2022년에 비해 2025년 외래환자가 5천명 정도 감소한 것에 대해 극복 계획을 질의함.

-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의료진의 기술 개발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겠음.

- 최일숙 의원: 30%를 계약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정년퇴직한 교수와 물리치료사를 계약직으로 전환한 부분이 단기순이익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인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 계약직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은 300-400만원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정규직의 경우 근속 5년 이내에는 급여가 유사하더라도 20년이 되면 연봉이 8-9천만원 정도가 됨. 또한 휴가가 증가하여 근무량은 감소하고 급여는 증가하므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통해 인력 구조가 조정되면서 수익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음.

- 최일숙 의원: 해당 방안은 근본적인 이익 개선보다는 단편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음.

-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 간호등급제나 보험 부분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한방 비급여 부분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 등 해결이 필요함. 인력의 문제로 근무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음.

- 이진중 의원: 병원 환자 연령대에 대해 질의함.

-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 한방을 제외하고는 노인 환자의 비율이 압도적임.

- 의장: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서는 3개의 진료과를 축소하여 수익이 감소한 사례가 있는데 전주한방병원은 어떤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 전주한방병원도 정년과 계약직 문제 해결이 필요함. 이전에 비해서는 교수 인력이 감소했으며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자문의로 대체하여 한 달에 150만원으로 줄이게 되었음. 진료과도 교수를 9명으로 줄이고 계약직 의사 2명으로 유지하고 있음.

- 의장: 양방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는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 건강검진의 경우 내과 전문의가 하고, 재활 전문의는 주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하고 있음. 내과 전문의도 검진을 하고 있으며 중증 환자 관리

부분의 주사제, 마약, 혈압, 체온조절 등의 역할이 있음.

- 최일숙 의원: 의료 특화와 시설 개선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병원의 이용자인 환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고려해야 함. 한방병원의 오감만족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요구를 고려한다면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 다른 한방병원의 사례들을 벤치마킹 및 모니터링하여 고려 중임.

- 의장: 이상으로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의 결산 자문을 마침.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장: 결산 보고

- 의장: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 순이익을 늘린 것은 고무적이라고 판단됨. 인건비나 재료비 등 크게 늘어나지 않기에 의료외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듯하여 재료비 증가가 의료외수입 증가와 연계되는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장: 공진단과 경옥고와 같은 프리미엄 한약 판매가 감소하여 재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재료비가 올라 반영하였는데 판매가 저조해져 재료비가 감소하였음.

- 의장: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의 수 변화에 대해 질의함.

-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장: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가 증가하였음. 환자 수는 증가하였는데 평균 진료비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의장: 로컬 한방병원과 비교하였을 때 대학병원의 의료수가가 높은데 환자들이 수가의 차등을 느끼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장: 차별성을 체감하려면 진단기기나 치료기기를 도입해야 하며 로컬 병원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나 대학병원에서 기기 구입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 초진진료비와 약제비 등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대학병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됨.

- 의장: 병원 인력 구성상 문제는 없는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장: 병원의 규모가 교육병원으로서의 면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음. 병원의 증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진중 의원: 양방 재활 의학이나 협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함.

-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장: 의학 협진을 5년 동안 계속 진행 중이며 통합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나, 환자 교류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있어 교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방법 모색이 필요한 부분임. 현재 2025년보다 의료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 교원의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대학교에 전출해야 하는데,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를 전출해야 하므로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대학교 차원에서 임상교수가 연구년제를 가는 동안 교원인건비 부분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진중 의원: 전출금에 대한 대안에 대해 질의함.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장: 재활학과의 경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의장: 한방병원의 병상 이용률에 대해 질의함.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장: 허가병상은 71병상인데 가동병상과 허가병상의 차이가 있음. 허가병상 기준으로 약 90% 수준을 운영 중이며, 최소 병상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임. 병상 운영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임.

- 의장: 이상으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의 결산 자문을 마침.

[안건2. 2025학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결산 자문]

[원광보건대학교]

- 전문학사지원처장 장기성(이하 '전문학사지원처장'): 결산 보고

- 의장: 원광보건대학교 결산 보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발언해주시기 바람.

- 이진중 의원: 원광보건대학교와 원광대학교가 통합하면서 원광대학교가 조금 더 갖추어야 할 부분이 수익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부분 것으로 보임. 원광보건대학교는 학교

사업 비용이 등록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되고 나머지 재원은 어떤 수익 구조인지 질의함.

- 전문학사지원처장: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여러 요인이 있었음. 2024년 대비 인건비가 11억원이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2024년 일반 재정 지원 사업, 혁신 지원 사업, 특수목적사업 등이 있었으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인건비를 70-80%까지 대체한 금액이 상당하였음. 이러한 부분이 2025년 라이즈사업 체계로 넘어가면서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외에는 인건비를 대체하지 못하게 된 영향이 있었음. 국고재정지원사업으로 150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교비 대체를 50% 정도 했었는데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적립금이 계속 증가하였음. 2025학년도의 경우 기말자금이 20억원이고 적립이 25억원 정도로 총 45억원 정도가 이월되거나 적립된 것임. 직접 교육 경비와 인건비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국고지원사업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완범 의원: 작년에 재학생 이탈률이 8%였는데 이전 추세가 어땠는지 질의함.

- 전문학사지원처장: 코로나 이전에는 5-6%였는데 7%가 넘으면서 심각성을 깨닫고 관리하기 시작하였음. 학생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리하던 중이었는데 통합이 되었음.

- 이완범 의원: 원광보건대학교는 재학생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의함.

- 전문학사지원처장: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통합된 시점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만약 적용할 수 있다면 전문학사과정 5개 과와 남아있는 전문학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라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프로그램이 행정부서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여 학과와 행정부서가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진중 의원: 전공심화과정을 통합원광대학교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지난 입시에서 전공심화과정과 성인학습자를 유치하였다고 하였는데 통합원광대학교에서도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함.

- 전문학사지원처장: 전공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산업체에 진출한 후 추가 학습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야간 과정으로 운영되는 제도임. 통합 이후 한시적으로 다양한 학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 특례가 허용된 부분임. 기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체 재직자와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추진하였음. 현재 전공심화과정으로 193명이 입학하였으며, 이를 담당하는 부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선취업 후학습 수요가 확대되는 추

세이므로, 이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통합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완범 의원: 기존에 공과대학 경우에도 재직자들에게 야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재직자 수가 주는 바람에 운영 형태가 축소되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야간에 수업하는 방식을 충분히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전문학사지원처장: 교육부의 전문대학 정책상 후학습과 이주배경 혁신지원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예를 들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했더라도 나중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설하라는 요구가 있었기에 전공심화과정도 필요하다고 예상됨.

- 이진중 의원: 통합원광대학교가 되면 전문대학에서만 했던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질의함.

- 전문학사지원처장: 협의회에 통합 후 전문대학 대상 사업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으나, 대학 코드가 변경되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 최일숙 의원: 연도별 학생 등록이 2022년부터 감소되었는데 외국인 재학생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 어느 학과로 주로 오는지 질의함.

- 전문학사지원처장: 출신 국가는 다양하나, 주로 네팔 출신 학생들이 영어트랙 과정의 치기공과와 호텔관광과로 유입되고 있음.

- 최일숙 의원: 외국인 유치가 잘 되는 학과를 특화 시키면 학생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됨.

- 전문학사지원처장: 기존 학과의 절반 이상이 간호보건계열이나, 해당 계열은 국가자격 취득과 연계되어 있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간호보건계열은 유치 시 주의가 필요하며, 호텔관광과는 별도 국가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특화 시킬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진중 의원: 전문학사과정이 포함되면서 선택지가 확대되고, 다양한 국가와 학생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음. 중국권 학생은 공학계열을 선호하고 진학 목적의 요구가 많으며, 네팔과 방글라데시권 학생은 영어 사용 비율이 높아 영어트랙과 취업에 대한 요구가 큼. 통합원광대학교는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간호계열이나 의학계열은 석·박사과정으로 유입을 시도하고, 보건계열은 전문학사과

정으로 유입할 수 있는 상황임. 유학생 국적은 동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적 다양화에는 GDP 수준의 영향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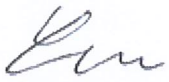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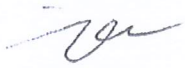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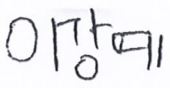
- 의장: 원광보건대학교의 등록금 수입은 9.5%인데 인건비는 18%로 인상하였음. 인건비가 이렇게 인상된 이유에 대해 질의함.

- 전문학사지원처장: 호봉 기준으로는 2% 정도의 영향이 있으며, 전년도 전체 2.4% 인상분이 반영되었음. 또한 인건비 상당 부분을 국고재정지원사업에서 대체해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인건비가 11억원 감소하였음.

- 의장: 운영비도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전문학사지원처장: 관리운영비가 3억원 중반대로 증가하였는데, 스쿨버스의 경우 원광대학교가 선제적으로 무료 이용 조치를 시행하여 동문 주차장에서 동일한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음. 원광보건대학교 학생에게도 신입생은 무료, 재학생은 반값 운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관리운영비가 증가한 요인이 있음.

- 의장: 이상으로 원광보건대학교의 결산 자문을 마무리하며, 제140차 대학평의원회를 종료함.

의 장	윤치근 (인)	
부 의 장	김동혁 (인)	
평 의 원	정헌영 (인)	
평 의 원	최일숙 (인)	
평 의 원	문준일 (인)	
평 의 원	이완범 (인)	
평 의 원	이진중 (인)	
평 의 원	이승준 (인)	
평 의 원	심경식 (인)	
평 의 원	김희태 (인)	
평 의 원	김용구 (인)	
평 의 원	한종혁 (인)	
평 의 원	박건욱 (인)	
평 의 원	이강예 (인)	

위 임 장

소 속 : 직원노동조합

성 명 : 김동혁

위 본인은 제14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석할 수 없기에,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합니다.

※ 불참사유 : 영호남 4개 대학 직원노동조합 협의회 참석

2026년 4월 21일

위원 : 김 동 혁 (인)

원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귀하

위 임 장

소 속 : 노동조합

성 명 : 이승준

위 본인은 제14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석할 수 없기에,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합니다.

※ 불참사유 : 출장

2026년 4월 24일

위원 : 이승준 印

원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귀하

위 임 장

소 속 : 한중관계연구원

성 명 : 문 준 일

위 본인은 제14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석할 수 없기에,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합니다.

※ 불참사유 : 당일 출장

2026년 4월 24일

위원 : 문 준 일 印

원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귀하

위　　임　　장

소 속 : ㈜신토성건설

성 명 : 김 용 구

위 본인은 제14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석할 수 없기에,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합니다.

※ 불참사유 : 개인사정

2026년　　4월　　24일

위원 :　김 용 구　　印

원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귀하

위 임 장

소 속 : 원광대학교 총동창회

성 명 : 심경식

위 본인은 제14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석할 수 없기에,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합니다.

※ 불참사유 : 출장

2026년 4월 24일

위원 : 심경식 印

원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귀하

위 임 장

소 속 : 원광대학교 총동문회

성 명 : 김희태

위 본인은 제14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석할 수 없기에,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합니다.

※ 불참사유 : 개인사정

2026년 4월 24일

위원 : 김 희 태 印

원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귀하

위 임 장

소 속 : 총학생회

성 명 : 한종혁

위 본인은 제14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석할 수 없기에,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합니다.

※ 불참사유 : 개인사정

2026년 4월 24일

위원 : 한 종 혁

원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귀하